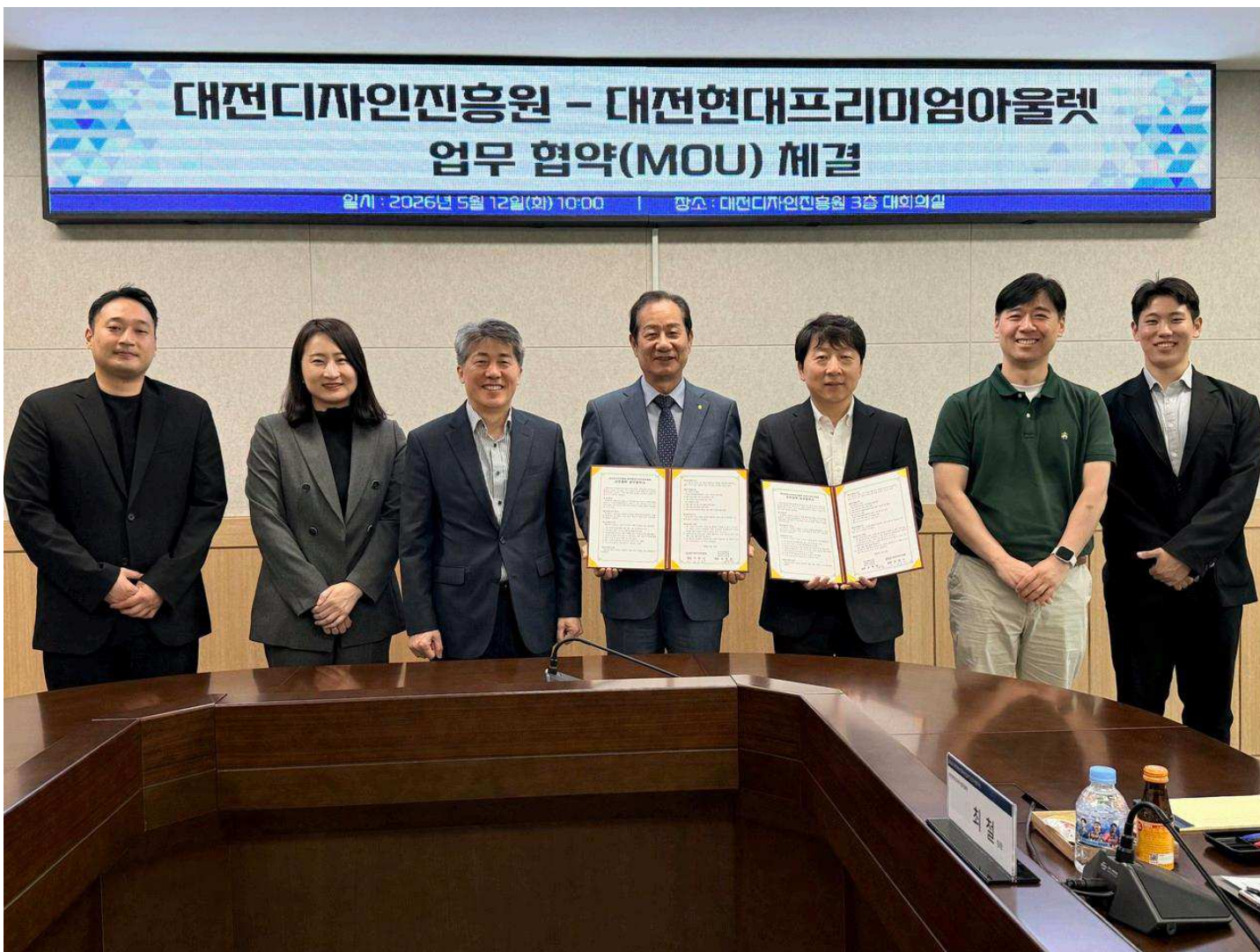


# 대전디자인진흥원-현대아울렛, 지역 패션산업 활성화 맞손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6.05.12 11:05

지역 패션 브랜드 육성·유통 활성화 협력  
제15회 대전패션컬렉션 아울렛 개최 추진  
팝업스토어·전시 등 로컬 브랜드 홍보 강화



12일 대전디자인진흥원과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디자인진흥원과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12일 지역 패션산업 활성화와 로컬 패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지역 패션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대전패션컬렉션 행사 개최를 위한 아울렛 내 공간 활용, 팝업스토어·전시 등 브랜드 홍보, 행사 운영과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올해 15회를 맞는 대전패션컬렉션(DFC)을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개최하고 장소 활용부터 홍보·마케팅까지 행사 운영 전반에서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대전패션컬렉션이 단순한 패션 행사를 벗어나 지역 패션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로컬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디자이너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현준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의 패션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한다”며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시민들과 지역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6 대전패션컬렉션은 지역 중견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연계형 패션 행사다. 지역 주요 대학 패션 전공자와 패션 관련 기업이 참여해 세대 간 경험을 나누고 지역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